

[오피니언]

데스크 시각

박진현



최근 서울 세종문화회관은 TV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 때문에 일거리가 하나 더 생겼다. 문화나눔 활동의 하나로 창단하는 '시민 체임버 암살부'의 아마추어 단원모집(정원 20명)에 270여 명이나 몰렸기 때문이다. 지원 인원이 예상을 뛰어넘자 세종문화회관은 서류심사 대신 당초 계획에 없던 오디션을 통해 단원을 채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원자들의 '경력'을 들여다 보면 높은 경쟁률이 무색해진다. 아이들 뒤 바라지로 30년간 바이올린을 멀리했던 음대 출신 40대 주부에서부터 피아노를 잘 치던 언니에 밀려 바이올린을 제대로 공부하지 못했던 20대 회사원 등 연주의 '경력'치곤 신동치 않아서다.

클래식 열풍 이끈 '베바'

평범한 사람들이 시민체임버앙상블의 문을 두드리게 된 데에는 MBC 수도극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이하 '베바')의 영향이 크다. 드라마에 등장하는 단원과 지원자들의 이력이 비슷한 게 좋은 애다. 오후

지출의 오케스트라가 최고 실력의 마에스트로의 지도로 훌륭한 연주자가 되는 드라마의 줄거리가 '사워어가던' 클래식에 대한 열정을 되살려 좋은 것이다.

지난 9월 초 첫 방송 이후 등시간대 시청률 1위를 기록한 '베바'는 전국 안방에

'비엔날레 바이러스'는 없는가

클래식 열풍을 일으키며 전방위로 확산 중이다. 이 드라마의 컴필레이션 음반 '베토벤 바이러스-더 클래식스 Vol.1'은 발매 2개월 만에 클래식 음반으로 '밀리언셀러' 인 3만5천여 장이나 팔려나갔다. 서점가에는 면지를 뒤집어쓰고 있던 클래식 관련 서적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공연계도 '베바'에 감염되기는 마찬가지. 경기침체 여파로 전시, 연극, 영화 등이 부진을 겪고 있는 것과 달리 지난 3일 전국투어 스타트를 끊은 첼리스트 장한나는 물려드는 관객들로 즐거운 비명을 질렀다.

페니스트 김정원이 11일부터 전국 12개

도시순회에 나서자 인터넷 예매 사이트에는 관객들의 접속이 폭주하고 있다.

이 같은 '베바 열풍'은 새삼 2008 광주 비엔날레(9월5~11월9일)를 되돌아 보게 한다. 드라마 '베바'와 비슷한 시기에 개최됐지만 이렇다 할 화두 하나 없이 '조용히' 막을 내렸기 때문이다. 물론 방송의 영향력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지난 1995년 창설 이후 10여 년이 흘렀지만 매번 변변한 이슈나 신드롬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냥 넘어서가 아닌 아쉬움이 많다. 지역문화계에 일대 바람을 일으키는 '반짝특수'를 찾아보기 힘든 것이다.

불구하고 언론에 길맞는 미술 인프라는 빈약하기 짙어 없다. 지금쯤이면 미술의 도시답게 국제적 수준의 미술관 하나는 이미 들어서야 맞고 한국을 상징하는 국제아트페어가 매년 열려야 한다. 또 국내 외 미술학도들이 현대미술을 접하기 위해 광주로 몰려들고 미술계의 큰손들은 미래의 스타작가를 찾기 위해 광주행 비행기에 몸을 실어야 한다.

미술 인프라 등 '실리' 쟁길 때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미대를 졸업한 청년작가들이 유명작가가 되려면 '미술의 도시 서울'로 창작의 터전을 옮겨야 하고 시립미술관은 찾는 관람객이 적어 늘 썰렁하다. 물론 광주비엔날레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도 무시할 수는 없다. 아시아문화 중심도시를 이끌 근간이자 국제미술계에 '광주'를 알리는 문화 브랜드라는 점은 무엇과도 비교 수 없는 무형의 자산이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보이지 않는 가치에 매달릴 수만은 없다. 부산문화재를 통해 부동의 '아시아의 할리우드'로 굽부상하고 있는 부산과 오페라축제 하나로 공연계의 메카로 자리 잡은 대구의 성과는 이제 광주비엔날레 '실리(實利)'를 쟁겨야 할 때임을 상기시켜준다. 광주가 '미술 열풍'에 빠뜨리게 할 '비엔날레 바이러스'가 창궐할 그 날은 언제쯤일까.

〈문화생활부장〉 jhpark@kwangju.co.kr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심상돈



우리 뇌는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누어져 있다. 흔히들 논리적·분석적·이성적이라면 좌뇌형 인간이고, 반면 감성과 직관이 발달한 예술가적 기질을 가졌다 면 우뇌형 인간이라고 말한다. 왼쪽 뇌를 많이 쓰느냐, 오른쪽 뇌를 많이 쓰느냐에 따라 이성적이거나 감성적이라는 얘기인데, 과연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일까? 아니면 단순히 잘못 알려진 통념일까?

통념과도 이것은 잘못 알려진 통념에 가깝다. 그렇다고 완전한 거짓은 아니다. 우리의 뇌에는 감각을 종합하고 고도의 지적 기능을 담당하는 대뇌피질

판단이 흐려지고 결정을 내리는 게 어렵다면 앞쪽 뇌의 활동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음이 조급해지거나 갑자기 '훅'할 때가 잦은 것도 마찬가지다.

앞쪽 뇌의 손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슬'이다. 술을 만성적으로 마시는 사람들의 뇌를 활용해보면 유독 앞쪽 뇌를 헐렁해져 있다는 보고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 다가올 연말연시에 폭탄주를 먹거나 마시는 건 뇌를 손상시켜 헐거워지게 하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

뇌세포는 한번 손상되면 재생이 되지

기고

김환규



광주를 문화수도로 만드는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조성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선거공약으로 시작됐지만 국가균형발전을 비롯한 미래형 도시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정부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이다.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조성은 문화발전소인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건립을 비롯한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예술 진흥 및 문화관광산업 육성, 문화교류도시로서 역량 강화 등이 주요사업이다.

하지만 옛 남도청 일대에 들어서는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이 지난 6월 착공에 들어간 것 외에는 거의 진척이 없어 답답하다.

유·무형의 문화적 자산 가치가 있는

오른쪽, 왼쪽 그리고 앞쪽 뇌

이라는 부위가 있다. 대뇌피질은 대뇌의 가장 바깥층으로 수많은 줄무늬를 갖고 있는데, 이는 다른 동물들의 뇌와 다른 점 중 하나이다. 그래서 인간의 지능이 고도로 발달할 수 있었던 깨닭을 여기에서 찾고 있다. 어쨌건 좌뇌나 우뇌이니 하는 것은 바로 이 대뇌피질을 두고 하는 말이다.

최근에는 전두엽이라 부르는 '앞쪽 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각종 자극을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뒤쪽 뇌'와 달리 '앞쪽 뇌'는 동기를 부여하고 충동을 억제하며 계획을 세우게 하는 기능을 한다. 전두엽 치매에 걸려 사회성이 떨어진 결과로, 남을 돋기 좋아하던 할머니가 암체로 돌변해 막무가내로 고집을 끌고 생트집을 잡는 사람으로 변한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런 사례를 감건다 불구하고 하듯 남의 이야기로 흘려들으면 안된다. 갑자기 명해지는 일이 찾아지거나

않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의식적인 훈련을 계속하면 뇌의 유연성이 길러진다는 최근 보고가 있다. 즉 노력하면 앞쪽 뇌를 발달시키기 치매에 걸리는 속도도 늦출 수 있고, 치매에 걸리더라도 최소한의 인간다움은 유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외부 자극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뒤쪽 뇌를 쉬게 하고 명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TV를 끄고 독서를 하거나 외국어를 배우는 것도 좋다고 한다. 항상 변화를 주도하고 자기계발을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좌뇌나 우뇌이니 하면서 각각을 발달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점점 더 복잡해지고 예측이 어려운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오른쪽뇌와 왼쪽뇌 뿐만 아니라 앞쪽뇌의 속성을 고루 갖춰야 할 것 같다.

〈광주동아병원 원장〉

온펜클럽은 매월 광주일보 '오피니언'에 기고자 중 최우수작에 수여하는 '온펜상' 수상자들의 모임인 '온펜클럽' 회원들의 기고를 싣는 코너입니다.

아파트 우편물 절도 속출...개인정보 유출 피해 우려

얼마전 최근에 아파트 1층 현관에서 입주민으로서 보이지 않는 행색이 남루하고 나이 든 남자 한명이 1층 우편물함에서 편지를 내려고 있다. 처음에는 입주민 중 누군가 우편물을 찾아가거나 보낸 것 같았는데 그 사람은 우편물함에 끊혀진 책자류, 신문, 광고물 등 종이류를 모두 내려놓았다. 배달된 우편물도 중요할 뿐더러 그 안에 각종 개인정보가 들어있는데 자칫 그런 것마저 유출돼 영향한 피해를 입지 않을까 염려된다. 개인정보와 외부 정보를 한꺼번에 훔치는 우편물 절도는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이영석·광주시 동구 대인동

내버린 채 달아났다. 관리실에 확인해봤더니 직원이 "요즘 먹고 살기가 힘들어 폐휴지 를 모아서 파는 노인네들이 아파트를 둘면 그런 일을 저지른다"고 대답했다.

배달된 우편물도 중요할 뿐더러 그 안에 각종 개인정보가 들어있는데 자칫 그런 것마저 유출돼 영향한 피해를 입지 않을까 염려된다. 개인정보와 외부 정보를 한꺼번에 훔치는 우편물 절도는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이영석·광주시 동구 대인동

숙박·음식업소 바가지 횡포 언제쯤 사라질까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과도한 것 같아 소비자 피해 상담 기관에 물어봤더니 사용 예정일 5일 이전에 취소하면 계약금 전액을 환급해야 한다는 게 아닌가.

당장 전화해서 따지고 물려달라고 하고 싶었지만 가을 성수기 한 철 장사하는 입장은 고려해 참았다. 결국 남편이 통사정해서 5만원만 주는 선에서 나머지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아무리 성수기라지만 숙박업소의 바가지와 위약금 횡포는 언제쯤 사라질까 모르겠다.

▲정미현·광주시 광산구 복룡동

시설

정부·여당, 임기응변식 '지방정책' 안 된다

한나라당이 그제 개최한 전국 16개 시·도자기 정책협의회는 3대13의 일방적 구도였다. 서울, 인천, 경기 등 3개 시·도가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를 옹호한 반면 비수도권 단체들은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집권여당의 정책협의회에서 비수도권의 협의를 받지 말 확인한 것이다.

이같은 결과는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다.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발표 이후 국론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뚜렷이 분열돼 있다. 비수도권은 국회의원과 자치단체, 시·도의회, 경제계, 사회단체 등이 총궐기하는 양상이다. 비수도권의 저항은 갈수록 거세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선(先) 지역균형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완화'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원칙 대신 설익은 선심성 대책으로는 지방의 반발을 결코 잡을 수 없다. 정부는 당장 수도권 규제 완화를 철회하고 광역경제권 구상을 전면 수정해야 할 것이다.

'관광 흉물' 지산유원지 활성화 방안 없나

광주의 대표적 관광지 중의 하나였던 지산 유원지가 수년째 방치되면서 흉물로 전락했다. 쓰어가는 저수지, 멈춰선 궤도차, 물이 넘쳐나는 화장실, 쓰레기 투성이 전망대, 절반 가까이 줄어든 상가 등 '문화수도' 광주의 명소라고 할 수 없는 상태다. 올해 '광주·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광주를 다녀간 상당수 국내외 관광객이 지산유원지를 찾았다고 하니 뿐만 아니라 그들이 광주를 떠나는 이유이다.

지산유원지가 이처럼 활폐된 것은 개발업체의 책임이 가장 크다. 그렇다고 광주시와 동구청 등 관할 당국도 자유로울 수는 없다. 행정기관이 사유지인 이곳을 개발·관리할 주체가 없다는 이유로 '나몰라라' 해왔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공공재인 관광자원을 방치한 것이다.

광주시는 지산유원지 활성화를 모색해야 한다. 광엑스포 등 국제행사와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등에 대비해 문화와 위락시설이 어우러진 특색있는 공간으로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다. 광주시의 회 등도 '무등산개발 조례' 등에만 집중하지 말고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 지역 사회가 힘을 모아 있는 관광지라도 잘 활용하자는 얘기다.

無等鼓

미국 제44대 대통령 선거가 블라인드 오바마 당선인에게 미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 탄생이라는 영광을 안긴 채 마감됐다. 하지만 오바마가 임기를 마친 후에도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억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전 세계 금융 위기와 이에 따른 실물경기 침체가 그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노믹스'의 3대 키워드는 경제 회생, 미국 산업보호,

친환경으로 요약된다.

당신 확정 후 오바마

가 가장 먼저 낸 시 웰

로시 하원의장과 경기

부양책을 논의하고 이

를 후 기자회견을 통

해 경기부양책을 제시

할 만큼 그에게 경제

위기 극복은 절박하

다. 실물경기 악화를

막기 위해 조속한 부양책이 필요한데

발효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

에 취임 전부터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검은 루스벨트'를 꿈꾸는 오바마가

내놓을 21세기형 뉴딜정책은 도로건설

등 전통 기반시설 투자를 더해 첨단산

업과 친환경 투자를 대폭 늘리는 방안

이다. 오바마는 금융위기를 촉발한 금

융자 위기로 인해

국내 경기 침체로 인해